전주시, 올해 동네체육시설 대폭 확충

10억 투입 꾀꼬리어린이공원 등 7곳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동네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시설 욕구 충족을 위해 국비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들여 동네체육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선수 육성 중심의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동네체육시설 7곳의 확충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로, 이달 중 신청 후보지에 대한 현지실사 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신청지는 금암어린이공원과 꾀꼬리어린이공원, 금암체육공원(어린이공원), 금암배수지, 효자동 용호근린공원, 문학대2공원, 삼천동 강변공원 등 모두 7곳.

금암어린공원은 기존 게이트볼 경기장 바닥 포장, 경기장 지붕과 그늘망 설치 등을 신청했다.

꾀꼬리어린이공원과 금암체육공원도 기존 게이트볼 경기장 바닥 포장 공사가 이뤄진다.

인후동 금암배수지에는 신규 풋살장 설치, 효자동 용호근린공원과 문학대2공원은 인라인스케이터를 위한 바닥재 포장 등 체육시설 보완을 신청했다.

또한 삼천동 강변공원에는 기존 족구장 울타리 설치가 추진된다.

올해 새롭게 7곳의 동네체육시설이 완공되면 지역주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건전한 스포츠 여가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치유되는 행복한 삶은 물론 건강한 사회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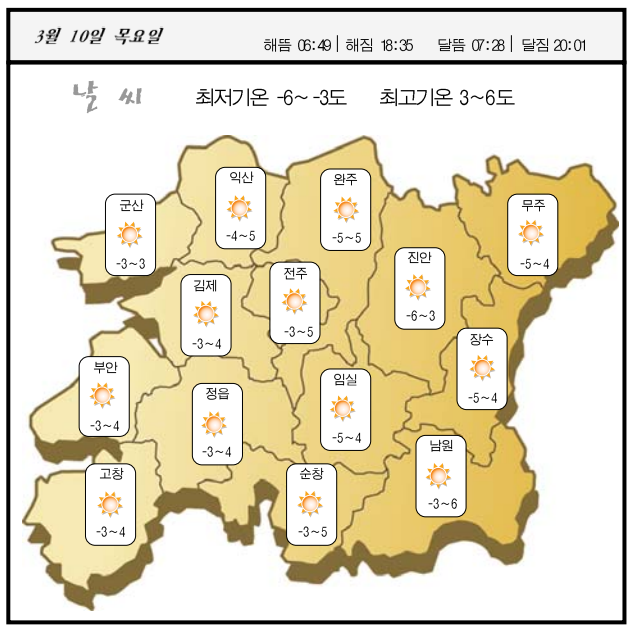
그리고 전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에 맞춤형 체육시설을 갖춰 생활공간 주변에서 10분 내외 거리에 동네체육시설을 단계별로 확충해갈 계획이다.

전주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우리 시의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35억 2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곳의 족구장과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등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을 완료했다.

/김영재 기자

다문화가족 선거 체험 모의투표 전주시다문화가족 선거 체험교육이 9일 중앙시장 옆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가운데 선거이론교육을 마친 한 결혼이주여성이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



전북대-로스알라모스연구소 탄소 중기 10사와 공동 기술개발

5개 분야 10개 과제 진행… 도 3억5000만원 지원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 10개 업체와 함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R&D 협업 과제를 진행한다.

로스알라모스연구소는 전북도의 해외우수연구소 유치사업을 통해 설립된 연구소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소 탄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소가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올해 총 3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8개 기업이 참여해 177억원의 간접매출실적을 거두는 등 사업 참여 전 143억원 대비 19.9%가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낸 바 있고, 5건의 신제품 제작 및 생산계약을 체결하는 등 높은 사업화 성공률을 나타낸 바 있다.

올해에는 도내 중소기업 '카본티씨지'의 '하니컴 탄소섬유 강화 폴리머 복합재의 손상 예측' 등 탄소 복합재 설계·해석·가공, 복합재 손상 예측, 유동해석 분야 등, 5개 분야 10개 과제가 진행된다.

연구소의 우수 연구인력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레이저 초음파 전파영상화 장비' 등 첨단장비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모를 통해 지난 1월 선정된 도내 중소기업들로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곧바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집중 연구하기 때문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복합재 구조건전성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고민형 기자

전주 탄소기술, 세계 중심에 서다

독일 카를수르에 공대와 협약 파리 'JEC 박람회' 한국관 운영

전주시가 독일의 탄소복합재 전문연구소와 공동연구개발에 착수하는 등 세계 탄소산업의 중심에 섰다.

전북도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지난 8일 오후 11시(현지시각 8일 오후 3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6 JEC World Composites Show(이하 제크쇼)'에서 독일의 카를수르에 공대(이하 KIT 대학)와 탄소복합재 차량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KIT대학은 탄소복합소재와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협력사업, 프로그램 등 공동제안서 신청 등에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또, 양 기관은 연수와 교육, 기술 컨설팅, 상호 연구원 및 인력 파견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탄소복합재 박람회인 제크쇼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국관을 운영한다.

세계 94개국 1200여 업체가 참가한 올해 제크쇼 행사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이 행사의 주빈국으로 선정돼 의미가 크다. 특히 행사 첫날인 8일은 '한국의 날'로 진행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과시했다.

탄소소재 박람회가 시상하는 기술혁신상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쌍용자동차, 독일 아헨공대 섬유기술연구소(ITA)가 공동 개발한 '원가절감형 고효율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맞춤형 비굴곡 섬유강화기술'이 선정됐다.

한국관에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등을 중심으로 지리산한지와 하이엠시 등 도내 9개 탄소전문기업이 참여해 연구 성과 전시와 기업홍보를 병행했다. 또 효성과 국도화학 등 국내 6개 기업들도 자체 기업홍보부스 운영했다. /김영재 기자

도, 후계농업경영인 336명 선정

전국 1807명의 18.6% 수준… 창업자금 최대 2억 지원

전북도가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36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은 전국(1,807명) 대비 18.6% 수준으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9일 도는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336명을 선정하고, 영농 창업자금으로 632억 200만원(융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농창업자금은 개인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농지 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융자조건으로는 연리 2%에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이번 후계농업경영인은 지난해 말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아 시·군과 전문평가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평가를 거쳐 도에서 최종 선정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60명, 여성 76명, 영농형태는 경종 295명, 축산 41명이며, 연령별로는 20대 85명, 30대 110명, 40대 141명이다. 지역별로는 정읍 56명, 김제 53명, 고창 38명, 익산 37명 순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북 농가 수의 17% 달하고, 농업·농촌의 리더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젊고 우수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198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40,300여명이 선정됐고, 그중 전북은 12.4%인 17,400여명이 선정됐다. /정영수 기자

전북대, 산학관 커플링사업 5개 사업단 선정

도에서 8억4,500만원 지원받아

전북대학교는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총 5개 사업단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지역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전북도가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은 첨단부품·소재와 신재생에너지(이상 이공계 과정), 경영관리, 유치원예술교육(이상 인문사회·예체능계 과정), 농생명 과정 등이며 전북도로부터 8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엔 총 235명의 학생과 230여 개 지역기업이 참여하며, 기업이 원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이 진행된다.

전북대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최우수 및 우수평가를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향후 대응투자 자금을 투입해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